

한국, 항저우 AG 목표 “금메달 최대 50개·종합 3위”



24일 인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선수단이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목표를 종합 3위로 설정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을 30일 앞둔 2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취재진을 대상으로 아시안게임 D-30 미디어데이를 열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은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 장재근 선수촌장과 구본길(펜싱), 신유빈(탁구), 김우민(수영), 장준(태권도) 등 각 종목 간판선수와 지도자가 참석해 이번 대회에 임하는 한국 선수단의 목표와 각오를 밝혔다. 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5~50개를 획득해 종합 3위에 오르겠다고 목표를 공개했다.

아시아의 공룡이자 미국과 '빅 2'를 이르는 개최국 중국,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상승세인 일본의 전력을 인정하되 일본과의 금메달 격차를 최소화하겠다고 체육회는 설명했다.

5년 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49개에 머물러 금메달 75개를 따낸 일본에 종합 순위 2위를 내주고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래 24년 만에 3위로 내려앉았다.

이기흥 회장은 "(메달 목표를 올리기 위해) 많

미디어데이서 일본과 격차 인정 “금메달 10개 차로 줄어든 것” 수영·바둑·브레이킹 선전 기대

이 노력했지만, 대표팀의 세대교체 과정에서 하루 이틀 만에 전력이 올라갈 수 없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대회를 원활하게 치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훈련 빈도도 줄어들었다"고 한국 선수단의 전력 약화 원인을 짚었다.

이어 "일본은 우리보다 10배를 더 투자해 도쿄 올림픽 때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우리가 그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과 금메달 격차를 10개 이상 줄일 것"이라며 "수영, 바둑, 브레이킹 종목이 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체육회는 수영·양궁(이상 6개), 펜싱·태권도·근대5종(이상 4개), 소프트테니스·바둑(이상 3개), 배드민턴·골프·사격·스포츠클라이밍·유도·롤러스포츠(이상 2개)를 금메달 강세 종목으로 꼽았다.

이번에 19번째를 맞이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올해 중국 항저우 일원에서 9월 23일 개막해 10월 8일 끝난다.

코로나19 중국 내 확산에 따라 예정보다 1년 늦춰 열리고, 대회 공식 명칭 앞에는 '2023' 대신 '2022'가 붙는다.

올해 아시안게임은 북한이 5년 만에 복귀하는 국제 종합대회로 관심을 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북한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는 자국 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려는 이유로 불참했다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로 2022년까지 국제 대회에 못 나왔다. 올해 징계가 풀려 열망 국민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국제 종합대회 복귀 무대로 삼았다.

이기흥 회장은 "중국에서 자연스럽게 복측 인사들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북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39개 종목에 1140명의 선수와 지도자를 파견한다. 한국선수단의 결단식은 9월 12일에 열린다. /연합뉴스

서진여고 소프트테니스 창단 첫 전국대회 ‘금’

김가원 추계연맹전 우승...단체전은 동메달 획득



2023 전국남녀중고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서진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시상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 서진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창단 1년 6개월만에 전국대회 금메달을 수확했다. 서진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난 17~23일 순창 다목적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남녀중고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서진여고 김가원(2년)이 여고부 개인단식에서 우승해 지난해 2월 팀 창단 이후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가원은 1회전 순창제일고 서미주(4-3 승), 16강 서진여고 소채은(4-1 승), 8강 도계전산정보고 김지영(4-0 승), 준결승 순창제일고 서유빈(4-1 승)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우승에 박은정은 상대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4-0으로 이겼다.

김가원·김세나·김민지·강민서(이상 2년)·소채

은·김민정·김현서(이상 1년)로 꾸려진 서진여고는 여고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진여고는 조별 예선에서 순창제일고(3-2 승), 대구여고(2-3 패), 충북산과학고(3-1 승)를 상대로 2승1패를 기록, 조 2위로 4강에 올랐지만 준결승서 대전여고와 접전 끝에 2-3으로 석패했다.

동신고 소프트테니스팀은 같은 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장재수·박재민(이상 3년)·문지혁·홍상현·김도휘·배무진(이상 2년)·김승진(1년)으로 구성된 동신고는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순창제일고에 1-3으로 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문지혁과 김도휘는 남고부 개인복식 준결승서 순창제일고 강성안·완성현 조에 2-4로 패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지혁은 남고부 개인단식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체육회, 청두U대회 입상자 포상금 수여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제31회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입상 지도자 및 선수들이 24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접견실에서 포상금 수여식을 갖고 광주체육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은 양궁 감독, 고병진 다이빙 지도자, 최미선 선수,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정다연, 김서경 선수, 김영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는 24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접견실에서 '제31회 청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광주대표 입상지도자와 선수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다.

포상금 수여 대상자는 양궁 김성은(광주은행 겸 광주여대) 감독, 다이빙 고병진(광주시체육회) 코치를 비롯해 양궁 최미선(27·광주은행), 다이빙 김서경(18·광주시체육회), 정다연(26·광주시체육회) 선수 등 5명이다.

김성은 감독은 청두U대회 여자 양궁 대표팀 여자 양궁 감독을 맡아 금 1개와 은 1개 획득을 이끌었다. 최미선은 여자 양궁 대표팀 만년니로 참가

해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했다. 고병진 코치는 다이빙 남자 코치로 참가해 다이빙 종목은 4개와 동 4개 수확에 기여했다. 김서경은 남자단체전에서, 정다연은 여자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청두U대회에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입상한 지도자 및 선수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포상금을 수여했다"며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투혼을 발휘해 광주의 명예를 드높여줘 지도자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여자핸드볼이 끊은 파리올림픽 본선 티켓...다른 구기종목은?

한국 여자 핸드볼이 2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2024년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통해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처음으로 파리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했다.

개최국 일본과 경기에서 25-24로 이긴 한국 여자 핸드볼은 4전 전승으로 1위를 차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부터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을 달성했다.

올림픽 핸드볼이 11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은 한국 여자 대표팀만 이뤄낸 대기록이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열리는 단체 구기 종목은 핸드볼 외에 축구, 농구, 하키, 축구, 핸드볼, 럭비, 배구까지 총 8개 종목이다.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본선 진출의 시작을 알린 가운데 다른 종목들도 올림픽 개막 전까지 본선행 티켓 확보를 위한 예선 대회를 앞두고 있다.

다만 8개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농구의 경우 이미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

여자 대표팀이 지난달 호주에서 열린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에서 5위에 그쳐, 4위까지 주는 최종 예선 진출권을 놓쳤다.

남자 대표팀은 지난 12일부터 시리아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사전 예선 대회에 안전상의 이유

남자 축구 9월 창원서 1차 예선 여자 배구 폴란드서 세계 예선 남녀 농구는 이미 본선행 좌절

로 불참해 올림픽 본선 진출 가능성이 사라졌다. 파리 올림픽에 야구, 소프트볼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인기 종목인 축구는 남자의 경우 9월부터 올림픽 본선을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9월 6일부터 경남 창원서 시작하는 아시아 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예선 B조 경기에서 한국은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미얀마와 경기하며, 여기서 조 1위를 하면 2024년 4월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본선에 진출한다.

이 본선에서 3위 안에 들면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나가기 된다. 본선 4위는 아프리카 4위와 플레이오프를 통해 마지막 티켓 확보에 도전할 수 있다.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여자 축구는 2024년 2월 열리는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2위 안에 들어야 한다.

2012년 런던, 2021년 도쿄에서 '4강 신화'를

쓴 여자 배구는 9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세계 예선에서 폴란드, 이탈리아, 미국, 독일, 태국 등과 경쟁해 2위 이상을 해야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다.

2위 안에 들지 못하면 올해 아시아선수권과 2024년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까지 세계 랭킹을 많이 올려놔야, 랭킹에 의한 본선 티켓 획득이 가능해진다.

남자 배구는 현재 세계 랭킹 27위인데 이를 10위권 안팎으로 올려야 랭킹에 의한 올림픽 진출이 가능해진다.

남녀 하키는 모두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곧바로 올림픽 본선 티켓을 획득한다.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 모두 본선행에 실패한 한국 남녀 하키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다른 대륙 국가들과 경쟁하는 최종 예선에 나가기 된다.

남자 핸드볼은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예선에 출전, 우승하면 올림픽 본선에 나가고 준우승하면 최종 예선 진출권을 받는다.

수구도 하키처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야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다.

럭비는 11월 일본에서 아시아 지역 예선이 펼쳐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오픈하이머
- 2관 오픈하이머, 강변의 무코리타
- 3관 오픈하이머, 보호자
- 4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5관 달짝지근해: 7510
- 6관 콘크리트 유토피아
- 9관 밀수
- 7관 새너ვე들, 밀수, 엘리멘탈, 보호자
- 8관 새너ვე들, 치치치 치킨의 비밀, 비공식식전, 메가로톤 2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파랑새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CHUNG TRIO CONCERT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